

# 이문화 간 소통과 갈등 해결의 방법론적 탐구\*

: 금남 최부(錦南 崔溥)의 『표해록(漂海錄)』 분석을 중심으로

최혜경\*\*

## 목 차

- I. 동아시아, 경계 넘기와 만남의 오래된 방법
- II. 경계 안의 위기: 주도(主導)와 교감(交感) 사이 동반자적 감성의 향상성
- III. 접경의 노정(路程): 자비와 학문, 보편적 인간성의 발화-장(發話-場)
- IV. 나가며: 인의(人義), 실천하는 군자의 공공성

**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최부의 생환 직후 그가 직접 찬술하여 바친 「중조문견일기(中朝聞見日記)」의 유희춘 간행본을 바탕으로 그의 발화와 행동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질적이고 상호 투쟁적인 감성의 중첩 양상이 어떠한 소통의 자질 내지 전략의 적용을 통해 생존의 '공감장(共感場)'으로 변용될 수 있었는지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최부의 표류 여정 속 생존의 방책으로 동아시아의 인도적 구조 정책과

---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2018S1A6A3A01080752)이다. 귀한 지면을 빌려 학술적 소통과 심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글에 대한 섬세한 제언과 질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 崔惠景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2감성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98-kyung@hanmail.net

투고일: 2024. 11. 13. 심사완료일: 2024. 12. 4. 게재확정일: 2024. 12. 24.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7..111>

더불어 난민의 행로에서 일행 안팎을 향해 발휘된 소통과 갈등 해소의 전략을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유실되고 관념적 질서가 무너진 갈등의 상황,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지속해야 하는 폐쇄적 공간의 공재(共在) 현장에서 어떠한 소통의 기술 및 갈등 해소의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과정이었다. 금남 최부의 『표해록』에 드러난 대화·행위·상황 등의 의미를 분석하며 이문화 간 쟁투의 감성 체계가 생존이라는 목표와 보편적 인간성을 공유하는 밀착적 관계로 재구성되는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주안점이었다.

분석의 경과로부터, 최부는 강렬한 원망과 잠재된 르상티망의 분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표류선 안에서 계층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발휘하려 하기보다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지성의 발휘와 ‘인의(仁義)’의 실천으로 갈등의 구조를 변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착 이후 접경과 육로의 노정에서 특히 최부가 이문화 간 관계 맺기에 보인 두드러진 소통의 전략은 정명(正名)과 덕치(德治)의 균형된 실현이었으며, 이 양상들은 그 발현 과정에 드러난 일관성 혹은 항상성을 볼 때 사실 행위 주체인 최부의 선택적 전략이 아닌 체화된 예법이자 군자의 평상심이 드러난 자연적 결과였음을 간추려왔다. 이처럼 『표해록』의 기록에 드러난 최부의 이문화 간 소통 전략은 15세기 조선의 군자 상을 빚진하게 추체험하도록 할 뿐 아니라, 혼종성과 탈경계적 운동성으로 점철된 오늘날 의미심장한 성찰과 사상적 차용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글은 고전이자 사실적 기록물인 『표해록』에 담긴 최부의 발화를 이문화 소통론 탐구의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로, 최부 연구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 금남(錦南), 최부(崔溥), 표해록(漂海錄), 유희춘(柳希春), 동아시아, 이문화(異文化), 소통 전략, 군자(君子), 감성, 공감장(共感場)

## I. 동아시아, 경계 넘기와 만남의 오래된 방법

금남 최부<sup>1)</sup>는 ‘성종 18년(1487)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간

1) 최부(崔溥)(1454~1504)의 자는 연연(淵淵)이고 금남(錦南)은 그의 호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1482년(성종13)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도서관(校書館)의 저작박사수찬 등을 지낸 바 있다. 유희춘(柳希春), 김세중안동공

이후 성종 19년(1488) 윤 정월에 아버지의 상사를 듣고 황망히 바다를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 절강성에 이르고, 그해 6월에 한양에 돌아와 왕명을 받들어 『표해록(漂海錄)』을 찬술하여 올린 조선의 문사<sup>2)</sup>(文士)이다. 최부와 그 일행이 절강성 연해에 표착한 이후 무사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적이 아닌 조선의 관리이자, 부친상을 치르기 위한 이동 중에 표류를 겪은 난민임을 천신만고 끝에 입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전 10~13세기 중국(宋)과 고려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해로를 포괄한 국제적 경제활동의 경로가 활성화되고 있었고, 표류한 사신이나 상인 등에 대한 구조 및 송환 절차가 체계화되고 있었다. 전영섭(2011)의 논문에서는 “송에서 시행한 표류 사신의 표착에서 송환까지의 절차는 ‘선박의 표착(漂着)→관(官)의 구제(救濟)→신문(訊問)조사→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중앙에서의 사신 파견→존무(存撫)와 상경(上京) 지시→의복예물 등 지급→송환→(사신) 본국(本國)으로 조서(詔書)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sup>3)</sup>”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일반민의 표류 사례에서도 그 구조와 송환 절차는 큰 틀에서 유사하다.<sup>4)</sup> 이처럼 해양 재난을 겪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큰 이유는 “표착 난민을 경계하지 않고 해난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뱃사람으로 인식<sup>5)</sup>”했던 당시 동아시아인들의

박명희 옮김, 『미암집』2, 경인문화사, 2013, 84쪽.

2) 유희춘, 위의 책, 2013, 85-86쪽.

3) 전영섭, 「10-13세기 표류민(漂流民) 송환체제(送還體制)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석당논총』 제50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422쪽.

4)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때 송은 11세기 초, 표류민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은 대중상부(大中祥符) 9년(1016)에 명주(明州, 현 절강성 영파시)에 조서를 내려 신라(고려)의 오기(誤記)의 선박이 표풍으로 해안에 도착하면 구(口)에 의거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존무(存撫)를 배가(倍加)하여 순풍을 기다려 귀환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 전영섭, 위의 글, 401쪽.; 장편(長編) 86권, 대중상부(大中祥符) 9년 2월 계묘조(癸卯條), 재인용.

5) 김치완의 논문에서는 이를 중세 유럽의 해난구조법과 대비하여 진술한다. 그는 ‘중세 유럽 연안의 제후들이 조난물을 점유하여 취득하는 것을 수입원으로 삼기도 하였고

의식 때문이었다. 최부 일행의 생환 과정에 동아시아 해상을 관통한 이러한 당대 윤리의식의 작동구조가 주된 지지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부와 그의 일행은 공식적 난민 구제와 송환 절차 이전에 우연한 민간 접촉의 단면들 속에서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입증하여야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표류하게 된 계기와 표착 이후의 목적이 국가와 민간 일상을 위협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국의 엄중한 호송 조치에 응해야 했다. 최부는 관의 조사 체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도적의 약탈로부터 자신과 목숨을 보전하면서도 자칫 해적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방어 목적의 난투조차 제한하고 판단과 설득을 거듭해야 했다.<sup>6)</sup> 또한 일행의 안위와 무사 귀환을 도모할 막중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추어, 문화지리어어의 생경함과 극도의 피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국의 낯선 이들과 접촉 방법을 판단하고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을 총괄하였다.

그 결과, 당시 최부의 일행은 처음 출항한 인원 43명 모두 무사히 생환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당시 중국의 통사(通事)나 조선의 사신에 의해서도 놀라운 경과로 평가된 사실이었다.<sup>7)</sup> 김나영(2018)은 그의 논문에서 조선 후기인

---

선박 약탈의 악습을 제재하기 위한 구난에 초점을 두고 해상법이 출발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이 표류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난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변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치완, 「제주(濟州)·유구(流求) 표류 난민의 신분 위장과 경계인 의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1권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30-31쪽.

- 6) 최부는 표해록에 “혹시 중국 땅에 표류했다 하더라도 역시 변경사람에게 왜적으로 오인받고 무고(誣告)되어, 변경사람이 목을 베고 상을 받는다 한들 누가 그 사정을 알겠는가? 우리 나라도 중국 제도에 의거하여 무릇 백관에게 호패와 석패를 주어 전서(篆書)로 관직과 성명을 적어서 평민과 다름을 나타내고, 왕명을 받드는 사신에게는 대소 관직에 관계없이 부월과 도끼를 주어 왕명을 존중하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며 표착 이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신분 확인 및 보호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10, 109쪽.
- 7) 최부의 귀로 중 4월 27일에 만난 조선의 사신은 “나의 이번 행로에 말을 관리하던 사람이 중도에 쓰러져 죽었소. 만리 길을 다니면서 모두가 살기는 실로 어려운데,

18세기 이후, ‘조선으로 송환된 표류인의 문정 내용을 보다 상세히 담아낸 『비변사등록』이나 『표인영래등록』, 『해외문견록』 등을 통해 표류인들에 대한 당시의 관심<sup>8)</sup>을 추정하고 있다. 최부의 표류 시기인 15세기 말은 국제 교역과 해상로의 발달로 인해 사신이나 상인들의 표류 발생이 점차 인지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아직 엄밀한 국가적인 대응이 정착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다. 최부의 표류 6년 전에는 ‘정의현감 이섬이 제주를 떠나 한양으로 향해 가던 도중 10일 동안을 표류하고 중국 양주 장사진에 표착하여 1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 47명 중 14명이 아사(餓死)하고 33명만이 생존<sup>9)</sup>하였다. 최부의 표류 1년 전인 1487년에는 ‘조선에서 북경에 보내 시책(諡冊) 올림에 하례하게 한 동지중추부사 이세필이 사신의 신분으로 요동에서 사망’하는 등, 타국을 횡단하는 길에 예기치 못할 슬한 고난이 상존하였다. 최부 역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제주를 왕래하다가 풍파를 만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열이나 백 명 중에 겨우 한두 명 정도다”<sup>10)</sup>라고 하여 당시 해상 재난 사고의 희소한 생존률을 언급했다. 더군다나 최부는 공무 중인 사신이 아닌 상중의 관리로 일반 난민이 된 입장이었고, 표착까지의 모든 정황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자구책으로서 소통 역량이라는 인적

---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없소?”라고 물으며 ‘실로 하늘이 살린 것’이라 하여 기뻐한다. 『표해록』, 448쪽. 5월 26일 기록에 통사 왕헌은 “무릇 먼길을 여행하는 중에는 몸을 쉴 수 없고, 때맞춰 자거나 먹지 못하니 병에 걸리기 쉽소.(……) 지금 그대들이 험한 파도와 월남, 연복을 지나 그대와 종자들도 몸을 보존하여 돌아가니 하늘이 위대로운 곳에 두었다가 이를 온전하게 하고, 화(禍)에다 두었다가 이를 복되게 한 까닭을 이로써 알 수 있소.”라고 말하여 위안과 격려를 건넨다. 최부, 위의 책, 500-501쪽.

8)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225쪽.

9) 최부, 앞의 책, 2010, 48쪽.

10) 최부, 위의 책, 109쪽.

자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부의 표류 여정 속 생존의 방책으로 동아시아의 인도적 구조 정책과 더불어 난민의 행로에서 일행 안팎을 향해 발휘된 소통과 갈등 해소의 전략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최부의 생환 직후 그가 직접 찬술하여 바친 「중조문견일기(中朝聞見日記)」의 유희춘 간행본을 바탕으로 그의 발화와 행동의 양상을 분석하면서<sup>11)</sup>, 이질적이고 상호 투쟁적인 감성의 중첩 양상이 어떠한 소통의 자질 내지 전략의 적용을 통해 생존의 ‘공감장(共感場)’<sup>12)</sup>으로 변용될 수 있었는지 탐구해보려 한다. 감성은 개체를 상호 작용하도록 만드는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인지 변화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동기이다. 개체의 변용을 일으키는 그 과정은 각 삶을 다채롭게 구조화하고, 그로 인해 개인과 집단의 경쟁적 서사가 만들어진다. 이로 볼 때 감성은 개체와 환경을 움직이게 하여 삶을 작동시키는 동적 조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감성은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삶의 법칙과 양상을 간취하여 인지 작용으로 인계하는 정보처리 체계로서 성격도 함께 지닌다. 최부의 일행은 표류와 표착 이후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때로 투쟁과 견제의 행위를 야기하는 감성적 자장을 형성했지만 궁극적으로 생존과 안위를 지향한 공감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원이 무사히 생환할 수 있었다. 바다 위 재난 상황과 표착 이후 귀환 여정은 “상이한 공감이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망”<sup>13)</sup>인 공감장이 ‘자멸→생존’, ‘분과

11) 이 글에서 분석할 금남 『표해록』의 한글 번역본은 3년에 걸친 동국대 대학원의 『표해록』 윤독회(1999.3.~2001.12.)와 정밀한 원전 검토를 거쳐 발행한 서인범·주성지의 역서(2010)로 하였다.

12) 감성인문학 연구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감성은 본질적으로 개체 간 연결성을 지니며 독립적으로 발생하거나 잔류하지 않는다. 감성인문학연구단의 저서에서는 “모든 감성은 곧 공감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공감장은 이 “공감의 발생적 조건이자, 상이한 공감들이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망”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11쪽.

공격→공동 방위'로 변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로 그 분석의 가치가 적실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2장에서는 제주 바다에서 중국 절강성 방향으로 표류하는 재난 속 상황에서, 자칫 원한과 자멸의 감성에 휩싸여 공멸할 수 있었던 일행을 어떠한 소통의 자질과 기지로 결속시킬 수 있었는지에 그 갈등의 해법과 역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장은 표착 이후 낯선 이문화 속에서 어떻게 경계인 내지 침입자의 혐의를 벗고 결국 호혜와 존중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는지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과 자질에 주목하여 이를 간취해 볼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최부의 『표해록』에 관하여 '당대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와 융합 양상, 유학자 인식과 발현, 경계 체험과 여로 문학적 성격 등' 다양한 측면을 고찰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sup>14)</sup> 이에 더해 이 글은 고전이자 사실적 기록물인 『표해록』에 담긴 최부의 발화를 이문화 소통론 탐구의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로, 최부 연구의 저변을 더욱 확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의 고도화에 의해 지구적 횡단이 혼성(混成)을 더하는 오늘날, 낯선 만남이라는 사건을 다루는 동아시아의 오래된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발견하고 공생·공진화를 위한 참조점을 얻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13)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위의 책, 11쪽.

14)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논문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것은 1964년(고병익, 「성종조 최부의 표류와 표해록」), 한글 번역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76년(이재호, 『국역 연행록선집』)(최부, 『표해록』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2010, 32쪽.)으로, 15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실상과 의식을 반영한 사료로 지닌 중요한 가치에 비해 그 학술적 조명이 뒤늦고 양적으로 공소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김강식(2015), 강운옥(2016), 김경미(2018), 김정녀(2007), 박명숙(2011), 서인석(2007), 손민환(2012), 오인택(2013), 윤인선(2021), 이광혁(2019), 이구의(2019), 이지영(2017), 임상선(2013), 정은혜(2020), 주성지(2019), 차해란(2023), 최철호(2022), 황아영(2019) 등 금남 최부의 『표해록』 분석과 그 활용 의미에 주요점을 둔 연구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접근하는 연구 분야도 다양해지는 추세로 보인다.

## Ⅱ. 경계 안의 위기: 주도(主導)와 교감(交感) 사이 동반자적 감성의 항상성

최부의 출항 당시 제주는 연일 흐리고 비가 왔다. 제주의 수로를 잘 알고 있던 김존려, 김득례 등은 날씨의 상황을 고려해 출항을 만류했다. 역시 제주 출신인 진무 안의는 ‘동풍이 마침 좋으니 떠나는 것이 좋겠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하는 등 당시 일행의 의견이 분분했고 최부는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멀리 물을 건너가 부친상을 지내야 하는 황망한 상황 속에 자식의 도리로서 지체할 수 없던 그는 이내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났다. 운항에 있어 정연하게 작동하지 않은 지휘 체계와 의견의 분분함, 이것이 배가 표류하게 된 초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날씨 상황을 우려한 채 불안감을 표명한 현지인들, 관리의 호송을 성료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항해를 추진한 수행인들, 불리한 상황 속 출항에 반감을 품고 추자도 정박을 돕지 않은 군인들, 닻이 끊길 정도로 요동치는 날씨와 정박에 부적합한 초란도의 지형. 이 모든 조건들이 작동한 끝에 윤1월 초4일, 사나운 바람과 물결에 닻이 파손되고 결국 배는 대양으로 표류해 들어간다. 아득히 보이는 흑산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동요하고, 군인들과 격군들은 “우리가 힘을 쓰다가 죽느니보다는, 편안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배는 오래도 견디는구나! 거의 파손된 것 같은데 어찌 빨리 망가지지 않는가!”<sup>15)</sup>라고 탄식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최부에게 터뜨린다.

이러한 성화를 겪는 당시 최부 역시 두려움과 불안, 좌절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기록에서 그는 “나 또한 익사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으며 “정치없이 표류하다 결국 죽음에 이를 것”<sup>16)</sup>이라 탄식하고 있었다. 하지

---

15) 최부, 앞의 책, 2010, 52쪽.

16) 최부, 위의 책, 52쪽.

만 이어지는 대응의 추이는 오히려 냉정함 속 정밀한 판단과 지휘 체계 구성의 시작이었다. 그는 먼저 안의에게 일행의 수와 구성에 대해 물으면서 이들이 어떠한 연유로 자신과 한 배를 타고 사고에 관계된 것인지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수로 지식과 운선(運船) 기술의 여부, 격군의 성실성 등 배의 표류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인적 구성과 자질을 검토한다. 그는 “지금 이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모두 게으르고 사나운 자들로 숫자만 많을 뿐이지 실속이 없어서, 배를 표류시켜 사지에 이르게 했으니 다만 통곡만 더할 뿐이다.”<sup>17)</sup>라고 발언하며, 어떠한 적극적 제언이나 협력적 노력 없이 반감과 비난만을 함부로 표명하는 무리를 징계하기도 한다. 곧 좌절과 불안이 엄습해오는 속에서도 그는 안팎의 감정적 억압에 매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같은 대항적 태도를 견지하여 자신을 비롯한 배의 일행이 치명적 무력감 속에 긴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선택과 처지에 대해 솔직하게 표명하여 운항의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조력을 호소하는 진솔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초상을 당해 가는지라 조금도 머무를 수 없는 사정이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를 권하기도 했으니 자식된 자로서 잠시도 머물 수 없었다. 너희들이 표류하게 된 것은 실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지만 형세가 또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자상정인데, 너희들이 어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배가 부서지거나 혹 전복되었으면 그만이지만 배를 보건대 지금은 단단하고 견고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겠으니, 만약 바위섬을 만나지 않는다면 수리하고 물을 퍼낼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혹시 바람이 잦아지고 파도가 조용해 진다면 계속 표류하여 다른 나라에 이르러 살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17) 최부, 위의 책, 55쪽.

18) 최부, 위의 책, 55-56쪽.

그는 이처럼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택에 대한 연유를 설명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두의 목숨이 위태롭고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거나 잠식되는 상황은 원망 또는 자책으로 인한 감정적 소용돌이 상태일 것이다. 최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냉철하고 강고한 의식을 솔직하고도 능동적인 발화로 표명하였고, 이로써 과실과 연유를 은닉위장하여 해법보다 추궁에 힘을 낭비하고 마는 과오로부터 일행을 구할 수 있었다. 표류의 시작, 그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최부가 발휘한 소통의 역량은 자기 파괴적 감성이 난무하는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이에 대항하며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이성이었다. 이것은 상황을 냉철함 속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선택하여 실행하도록 일행을 동기화하였다. 뱃머리에 추위 속에 바닷바람과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모든 옷과 행장을 적시는 가운데, 저마다 흠어져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을 비롯하여 차라리 목을 매고 죽으려는 사람도 발생했다. 최부는 이때 “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앉아서 침몰을 기다리는 것이고, 퍼낸다면 살 방법이 있다”<sup>19)</sup>라고 외치며 부싯돌로 불을 켜고 돛자리로 불을 지피 일행과 함께 몸소 물 새는 틈을 찾아 보수했다. 그가 옷을 벗어 일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독려하자 감동이 군인과 격군 등에 전파되었고 사력을 다해 분발한 이들이 물을 퍼내며 폭우와 바위섬을 빠져나오는 것으로 시급한 파손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격한 공포와 원망의 감정이 사람의 내면을 뒤흔드는 소요의 순간 열 마디 제언보다 힘을 지니는 것은 합리적 이성에 의한 판단과 더불어 그것에 머물지 않은 신속한 실천, 그리고 그것의 상호 관찰이 불러일으키는

19) 최부, 위의 책, 56쪽. 이후 배 안에서 두 번째 자살 시도가 발생했을 때에도 최부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이불을 찢어 다른 이들을 배의 횡목에 묶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항해의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가 이미 파손되었는가?”, “키는 잃어버렸는가?”, “물을 거의 다 퍼낸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독려하는 것, 냉철한 현실주의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동기화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기화로 이어지는 상호 관찰의 요소는 단지 사력을 다해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실천 행위에 한정되지 않았다. 일행은 최부의 절절한 축원에 통곡을 터뜨리는 가노(家奴) 막금의 모습을 보며, 자기 한 몸보다 일행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의 간절한 책임감에 공명하게 된다. “혹시 저에게 죄가 있다면, 벌이 저에게만 미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배를 같이 탄 40여 명은 죄가 없는데 바다에 빠지게 되었으니, 하늘이 어찌 불쌍히 여겨 감싸주지 않습니까? 하늘이 만약 이 궁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바람을 돌려주고 파도를 그치게 하여 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삶을 얻게 하여 얼마 전에 죽은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70에 가까운 저의 노모를 봉양하게 해 주십시오.”<sup>20)</sup>와 같은 호소에 최부의 일행들은 함께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며 통탄하기도 한다. 다만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의 공명은 다른 측면에서, 정신적 의지처에 대한 욕구를 발동시켜 현실을 맹안시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찍이 보지 못한 거대한 생명체인 고래를 만난 이후, 안의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바다에는 탐욕스러운 용신(龍神)이 있다 하니 소지하고 있는 행장 등 물품을 던져 제사를 지냄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얻기를 청하옵니다.”<sup>21)</sup>라고 말하며 의복과 군기, 철기, 식량 등을 모두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후에 물을 퍼낼 물건조차 없게 만드는 빈곤한 상황의 원인이 되었을 뿐, 일행들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풍랑을 잠재울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 이들을 육지로 인도한 것은 용신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최부의 해양 지식과 추론 능력이었다. 그는 상시 책과 지도를 통해 익힌 ‘섬라점성만랄가여인국일본국’ 등의 위치를 기억하고 표류한 시간,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추정한 후 중국 명주에 도달할

20) 최부, 위의 책, 58쪽.

21) 최부, 위의 책, 59-60쪽.

것을 일차 목표로 삼는다. 배사람들은 “단지 바람이 변한 사실로만 사방을 억측해 기억할 뿐이니 어찌 올바른 방향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자조했지만 키를 유지했고, 실로 배는 중국 우두외양(牛頭外洋)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해양 지리에 대한 넓은 소양과 과학적 추론 능력, 이것은 최부가 체험적 지식이 두터운 배사람들과도 아집 다툼 없이 소통을 성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역량 요인이었다.<sup>22)</sup>

망망대해라는 드넓은 공간에서 항해하는 배는 실상 폐쇄적 투쟁의 장소로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표류하는 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삶의 재생과 재구조화를 꾀할 가능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 움직이는 섬과 같은 공간에서는 인간성의 의미가 낮설어지기 쉽다. 이곳에서는 평소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생존 욕구가 날카롭게 일어서고 문명이 가차 없이 내던져지기도 한다. 낯설 같은 생존 희망이 지금껏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작동시켜 왔던 모든 관계와 관념 등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 간 유리병과 같은 일촉즉발의 파괴적 상황 속에서 최부가 배 안의 물과 식량 등 생존용품을 관리·활용하는 방식은 힘과 권력에 의한 운용이 아니라 신의(信義)와 목적의 공유였다. 그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것은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로 작동되었던 조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위급한 문제 상황 속에 권력을 분배하여 민주적 집단 의사결정 체계의 구성을 시도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

22) 최부는 의학적 판단력도 정밀했는데, 윤1월 11일에 물이 있는 한 커다란 섬에 도착하여 기쁜 사람들이 밥을 지어 먹으려 하자 “굶주림이 극도에 이르면 오장이 붙어버리는데, 만약 갑자기 먹으면 배부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하고 만류하며 죽을 끓여 먹게 했다. 최부, 위의 책, 71쪽. 이것은 영양재개증후군(refeeding syndrome)에 대한 최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논문에 따르면 이 증후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장기간 굶주림 후 영양공급이 시작되었을 때 심부전, 부정맥, 경련, 빈혈 등 중대한 심혈관계, 신경계와 혈액이상 등을 유발하여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중대한 질환’이다. 김정욱, 「영양재개증후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제7권 1호,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15, 15쪽.

소통 이론 연구에서 마시알라스와 허스트는 집단이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시행할 때의 과정을 ‘①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 찾기→②행동에 따른 결과 검토→③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지지 호소→④협상 및 타협→⑤투표에 앞선 제안 설명→⑥투표→⑦결정의 실행’<sup>23)</sup>의 단계로 제시한다. 최부의 일행은 생존의 위기 앞에 자연, 불안과 원망에 기반한 분파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는데 안의와 군인 무리는 불만의 간접적 표현을 통해 배 위의 의사결정 상황을 ③에서 ④로 진행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더욱 강력한 분파 형성으로 맞대응하거나 이에 패배하여 논의의 장을 종결시키지 않은 최부의 동반자적 자사에 의해 ⑤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최부는 대안으로 ‘합리적 설명과 제안, 신의에 기반을 둔 권력 및 역할 분배, 앞서 실천하는 참여적 태도’를 취하였고, 그 결과 일행의 구성원은 관찰과 숙고의 기회를 얻어 ⑦의 결과가 변용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의사결정이 표류 재난이라는 위급하고도 물러설 곳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⑥의 단계가 하나의 가시적인 절차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분파 형성과 대화 속에 나타난 갈등에도 불구하고 최부의 설명과 제안에 반(反)하는 언사와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표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 제한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의 행위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 폭풍을 겪으면서 최부의 일행은 작은 거룻배에 실은 식수를 잃어버렸고, 용신 제사를 거치며 분란을 겪은 후 물을 퍼내거나 빗물을 받을 그릇 하나 없는 상태로 빈곤하게 탈진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노(官奴) 권송이 감굴 50개와 청주 두 동이를 최부에게 보고했는데, 그는 이를 한곳에 거두어 나주 배리(陪吏) 손효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배를 위탁한다. “우리는 모두 한 나라 사람으로 골육의 정을 같이 하니, 산다면 같이 살고 죽는다면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 감굴과 술 한 방울이야말로 천금과 같으니, 자네가

23) 김신희, 「의사소통론에서 본 집단의사결정의 합의지향 모형」, 『사회과교육연구』 제5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8, 262쪽.

그것을 관리하되 함부로 쓰지 말고 기갈이 아주 심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라.”<sup>24)</sup> 생존 투쟁이 작동하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긴요한 자원을 관리·분배하는 통제권은 배 안의 구성원들을 경쟁하도록 만드는 핵심적 동기이자 힘의 중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자본이었다. 즉 이것을 운용하는 방식이 곧 자원의 소수 독점이나 폭력 상황에 의한 일탈과 와해 사이에서 선상의 문화를 방향 짓고 구성원을 안전하게 생존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되었을 것이다. 최부는 이 지점에서, 주요한 자원과 정보를 확보한 후 그것의 사용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배의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먼저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 구조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작동하는 것임을 상호 관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손효자는 ‘사람을 살피서 입술이 타고 입이 마른 사람에 한하여 고루 나누어 마시게 하’<sup>25)</sup>였고, 옷을 빗물에 적신 후 짜서 마실 수 있다는 안의의 말에 최부는 아직 바닷물에 젖지 않은 자신의 옷을 찾아 역리(驛吏) 최거이산에게 주었으며, 화순 현리(縣吏) 김중은 비에 적셔 짜낸 물을 사람들에게 한 숟가락씩 먹이었다. 생존을 위한 배 안의 실무 체계에서 조정·통제권을 분할하고 그 작동 양상을 수혜자들이 직접 체험·관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위기가 난립할 수 있는 망망대해 배 위의 공간에서 최부가 발휘한 지도자적 소통의 역량 중 주목되는 점이다.

배의 일행 앞에 생존 위기는 바다 위 폐쇄적 공간에서 파괴적 감정의 난립, 타지의 낯선 자연환경과 범박한 정보 외에도 끊임없이 닥쳐왔다. 윤1월 12일, 영파부(寧波府) 경계에 이르러 비로소 배 두 척에 탄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것은 대자연의 엄혹함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인가의 도움을 받게 된 희망의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적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이들이 위협적 요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이들은 마실 물을 나누어주고 펼담으로나마 지리적 정보, 바람의 방향, 안전한 정박지 등을 알려주었다.<sup>26)</sup> 이 시기,

24) 최부, 앞의 책, 2010, 70쪽.

25) 최부, 위의 책, 70쪽.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항해자들은 자연과 바다 위에서 인간이 모두 잠정적 난민이자 표류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력과 정보는 모두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강탈의 폭력성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도적이 되고 있었다. 즉, 이 때 영과부에 자리한 타국의 난민에게 보편적 인간성이란 상거래의 합리성을 전제로 취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최부는 먼저 “다른 나라 사람으로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대국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기쁘게도 살아날 수 있게 되었소.”라고 말하며 낯선 타국의 이들에게 섬세한 상찬과 답례의 화법으로 호혜의 관계성을 이끌어내었다. 길잡이를 제안하며 보화를 요구하는 무리에게 최부는 “우리는 왕명을 받은 사신이지, 상인의 무리가 아니오. 또한 표류하여 떠다닌 후이니 어찌 보화가 있겠소?”라고 말하면서도 곡식을 덜어 그들에게 보낸다.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존중과 답례로 강탈의 야만성 발현을 지연시키고 호혜의 관계성을 견지하려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힘의 대비가 명확하고 투쟁의 조건이 조악한 상황에서 합리성에 의한 당당한 발화와 호혜의 태도는 오랜 실효성을 지닐 수 없었다. 관인이 지냈을 재물을 탐낸 무리들은 금과 보화를 강제로 수색하고 곡식과 물건을 강탈한 후 최부의 신분 증표인 인수(印綬)와 마패(馬牌)마저 빼앗으려 했다. 옷을 벗겨 짓밟고 결박하여 몽둥이로 치고 거꾸로 매달아 작두로 머리를 베려는 포악한 행패 가운데 최부의 거짓과 굽힘 없는 언사는 주목할 만하다. “금은이란 본래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가져온 것이 없소”, “배 안에 있는 물건은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으나, 인수와 마패는 곧 나라의 신표로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나에게 돌려주시오”, “몸뚱

---

26) 섬에서 말린 고기를 만드는 두 채의 초가집에서도 일행은 배고픔에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당시 중국 남방의 풍조가 거칠지 않고 대가 없는 인정의 배품이 우선적이며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부, 위의 책, 74-75쪽.

이를 뚫개고 뼈를 부순다고 해서 금은을 얻을 수 있겠는가”<sup>27)</sup>, 이 같은 항변에 도적의 우두머리는 결국 인수와 마패를 돌려주었고 금은보화도 강탈해갈 수 없었다.

최부가 무리의 수장으로 겪은 수모를 지켜보면서 일행들에게는 분과 간 경계심과 생존의 이기심 한편으로 밀착적 감성, 즉 동반자적 공감대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관(記官) 이효지와와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빈약한 신분과 처지에 대한 연민, 죽음이 도처에 자리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 한편으로 최부에 대한 존경과 공감, 위로가 드러나 보인다.

“우리들의 죽음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차관의 죽음은 애통할 뿐입니다.”  
“너는 어찌 죽음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느냐?”  
“우리 제주는 멀리 큰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수로가 900여 리입니다. 파도를 다른 바다와 비교하면 매우 험악하여, 공선(貢船)과 상선의 왕래가 끊이지 않지만 표류하여 침몰하는 것이 열 중에 대여섯이어서, 제주사람들은 먼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제주에서 남자의 무덤은 아주 적고, 민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세 배나 많습니다. 부모가 딸을 낳으면 반드시 ‘이 아이는 나에게 효도할 놈이다’라고 하고,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고래와 악어의 먹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죽는 것은 하루살이 목숨과 같아서 비록 평상시에 살아 있지만 어떻게 자신들의 방 안에서 죽겠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만 조신(朝臣)의 왕래에는 바람을 기다리도록 권유하고, 선박이 빠르고 튼튼한 까닭에 풍파로 죽는 자가 예로부터 적었습니다. 지금 경차관의 몸인데도 우연히도 하늘이 돕지 않아서 앞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곡할 따름입니다.”<sup>28)</sup>

물론 안의와 군인들의 일부는 여전히 분과를 형성하고 있었고 최부가

---

27) 최부, 앞의 책, 2010, 76-78쪽.

28) 최부, 위의 책, 79쪽.

‘출항 전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음이 표류의 원인인 것으로 주장’<sup>29)</sup>하며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기도 했다. 출항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고 최부의 선택을 도모했던 안의의 태도가 변이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최부는 감정적 토로와 분파 형성에 대한 맞대응보다 유교적 인식을 설파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도적에 의한 최부의 수모를 관찰한 이들은 이미 그를 문제의 책임자라기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동반자이자 수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안의와 군인들의 간접적 질타에 권송만은 “바다를 건널 것인가는 바람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을 뿐, 어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겠는가?”<sup>30)</sup>라고 하며 실증적 사고로 항변했다. 이때 최부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군인들의 제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역으로 제시하며 그들의 미혹함을 징계하는 태도를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군인들과 안의는 불안이 엄습하는 위기 상황에 계책(計策)을 우선시하고, 무모할지라도 역동하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전투를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윤1월 16일 우두외양에 도착했을 때 해안에 정박한 중선 여섯 척이 멀리 보이자 안의는 최부로 하여금 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어 혹시 해적일지 모르는 이들에게 위세로 대응하고자 제안한다.<sup>31)</sup> 그러나 역시 앞서 파악한 해상의 거래 관행대로 이 여섯 척의 뱃사람들은 강탈의 야만성을 발휘했고, 빼앗을 것이 없자 인신 납치의 모략마저 세운다. 최부에 의해 일행은 이를 파악했으나, 영합하여 배를 버리고 따르자 하거나

29) 안의와 군인들은 제주를 오가는 배를 띄우기 전, ‘육지에서는 광주 무등산사와 니주 금성산사에서, 제주에서는 광양, 차귀, 천외, 초춘 등의 신사에서 먼저 제사를 지낸다’는 관례를 들어 이 표류가 누구의 잘못이냐는 말을 최부에게 들리도록 서로 주고 받는다. 최부, 위의 책, 80-82쪽.

30) 최부, 위의 책, 82쪽.

31) 안의는 “전에 하산에 도착했을 때 관인의 의례를 보이지 않아 도적을 불러들여 거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뻔 했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권도를 따라 관복을 갖추어 저들의 배에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며 원망과 질타의 의중을 대화 속에 드러낸다. 최부, 위의 책, 85쪽.

강력하게 저항하여 그들을 물리치자 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최부의 기지가 확인된다. 그는 낮선 해상 무리의 행실을 관찰할 때 신뢰할 수 없어 따라가는 경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경우 타국에서 왜적으로 모함 받을 수 있으니 형세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구성원을 설득한다. 그리고 해상 무리에게 ‘오래된 기갈로 위태롭게 목숨을 지탱하는 상황이니 먼저 밥을 지어 먹겠다’<sup>32)</sup> 말하여 궁리할 시간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한 뒤, 배를 버리고 육지로 몸을 피한다. 이후 사건의 경과에서, 최부의 판단과 실행은 실제 위험한 모략으로부터 전 일행의安危를 구한 대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얼마 지나지 않은 윤1월 19일, 도저소의 심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손바닥 글씨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로부터 왜적이 여러 차례 우리 변경을 약탈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비왜도지휘(備倭都指揮)와 비왜과총관(備倭把總官)을 두어 방비했소. 만약 왜적을 잡으면 모두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오. 당신들이 처음 배를 정박한 곳은 사자채의 관할로서, 수채관(守寨官)이 당신들을 왜인이라 무고하여 머리를 베고 현상하여 공을 얻고자 하고 있소. 그래서 왜선 14척이 변경을 침범하여 백성을 약탈한다고 보고하고, 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당신들을 붙잡아 참수하고자 했으나 당신들이 먼저 배를 버리고 사람이 많은 마을로 들어왔기에 그 계획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오. (……)”<sup>33)</sup>

즉, 여섯 척의 뱃사람들이 그들을 바다로 띄운 것은 군사의 도착까지 이들을 붙잡아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으며 수채관은 왜인 척결의 공을, 뱃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도록 의도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육지에서의

---

32) 최부, 위의 책, 91쪽.

33) 최부, 위의 책, 106쪽.

여정은 이 음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명과 신분 입증의 분투로 그려진다. 수장 최부가 바다에서 육지에 이르기까지, 좌충우돌하는 감정의 난장(亂場) 속에서 암묵적인 지휘권 경쟁 구도에 간혀 있었거나 각 위기의 단면에서 일행의 일부를 버리고 종자들과 함께 분파를 구성하고 탈출했다라면 43인 전원의 생존은 요원했을 일이다.

지력·분별력·통찰력을 포괄한 합리적 사고, 계층·직업·나이·지역 등을 막론하고 생존이라는 목적을 공유한 동반자이자 우선적 구조 대상으로 인식하는 막중한 책임감, 인력의 특성과 자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실무 역량, 원망이 투사된 행위에 위압적이거나 자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진솔한 대화와 논리적 제언으로 대상을 감화시키는 인화력, 낯선 땅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과의 접촉과 위협적 상황 속에서 명철한 판단력으로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지도력, 타협과 영합을 우선함이 결국 자신과 일행을 위기로 내몰 것임을 예측하고 횡포한 억압에 몸이 부서지더라도 진실과 예법으로 일관한 외유내강의 저항성. 최부의 이러한 자질들은 곧, 위기에 닥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밀착되고 자발성에 의해 작동하는 조직적 체계로 재구조화될 수 있었던 주요한 동기이자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접경의 노정(路程): 자비와 학문, 보편적 인간성의 발화-장(發話-場)

앞서 최부의 표류 과정에서 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생활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내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편, 표착 이후의 행로에서는 한중 정치 환경에 따른 외부적 문화 차이에 대한 그의 이해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엄혹한 대해(大海)의 재해로부터 피신한 안도감이나 이제 곧 인가를 만나 굶주림과 기갈을 해소하고 육로를 통해

귀국길에 오를 희망 속에 놓일 법하지만, 표착 이후 최부 일행이 육지의 노정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만만치 않은 시험대였다. 윤1월 18일, 최부 일행은 해안을 지키고 왜구를 포획하는 군사를 배치했던 해문위(海門衛) 관리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호송된다. 이들을 왜구로 인식한 마을 사람들은 발이 부르 뜨고 기진맥진한 채 이동하는 이들을 때리거나 조롱하고 심지어 약탈하기도 한다. 이에 격군(格軍) 고이복은 최부에게 “이 양반아! 어찌 괴로워 미치지 않는가? 당신이 그토록 힘들다면 사지를 내버려둬 차라리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다.”<sup>34)</sup>라고 말하며 참담한 심정을 울분으로 토로한다. 최부는 여기서 큰 치욕감을 느끼며 “차라리 죽겠다. 마땅히 이곳에서 죽으리라”<sup>35)</sup> 생각하며 자리에 누워버리는데, 이는 지금까지 냉철한 지도력으로 일행을 인도해 온 그의 심신이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다.<sup>36)</sup> 부친을 잃은 슬픔, 여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죄의식, 홀로 된 노모와 병약한 동생에 대한 걱정, 일행을 사지로 끌어낸 듯한 죄책감, 자꾸 자멸적 감정에 공명하여 지속적으로 설득과 조정의 에너지를 소모케 하는 분과 세력과의 갈등. 이러한 것들은 최부를 결국 소진(burnout)의 상태로 만든 심적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

---

34) 최부, 위의 책, 98쪽.

35) 최부, 위의 책, 98쪽.

36) 그는 외지 사람들이 양민을 소란하게 만들도록 둘 수 없다며 호송을 재촉하는 군리들에 의해 절뚝거리며 빗속을 건다가 “내 근력이 다하여 곧 죽을 것 같다. 일찍이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다.”라며 탄식하기도 한다. 최부, 위의 책, 97쪽. 바다의 재해 속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문화 환경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1. 최부 『표해록』 여정 경로

위 <그림 1><sup>37)</sup>로 나타난 최부 일행의 ‘표류 및 표착 이후의 여정은 무려 총 3,781.3km에 달하는 것’<sup>38)</sup>으로, 해상의 풍파로부터 살아남은 이후에도 최부와 일행은 다시 한 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피로와 굶주림, 절망감, 침입자 인식의 위협과 싸워야 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행을 전원 생활의 길로 이끈 최부의 전략은 다분히 문사(文士)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었다.

37) 국가유산진흥원, <폭풍을 만나 떠난 여행, 표해록>, 《국유정답》 2022 가을겨울호, [https://www.kh.or.kr/brd/board/741/L/menu/740?brdType=R&thisPage=1&bbIdx=114734&searchField=&searchText=\(2024.8.26.검색\)](https://www.kh.or.kr/brd/board/741/L/menu/740?brdType=R&thisPage=1&bbIdx=114734&searchField=&searchText=(2024.8.26.검색)).

38) 주성지, 「구글맵을 활용한 최부 『표해록』의 노정 복원, 『역사민속학』 제57권,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248쪽.

김정녀(2007)는 일상적 질의나 화답 시 등을 통한 문학적 필담을 통해 호송의 여정 속에서, “대화 그 자체가 문화 교류의 현장”<sup>39)</sup>이 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 최철호(2022)<sup>40)</sup>는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발휘한 최부의 지혜와 지도자적 역량으로 ‘외유내강의 통솔력, 정치한 기록, 윤리관과 충효정신, 미신의 배격과 과학적 사고,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 박학다식, 수차의 선진기술을 습득한 실용주의 사상, 청렴결백한 생애, 상복의 윤리’ 등을 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타국에서 그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라고는 단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조선의 인수와 마뽀뿐이었고 이들의 처지는 난민과 왜적의 인식 사이에 있었다. 가지고 있던 신표 역시 타국에서는 침입을 위한 위장 표식으로 오인될 수 있었고, 최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일행들을 대표하여 오로지 필담으로 현지 사람들에게 뜻과 요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부는 문화의 이질성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소통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을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 정보는 바로 ‘예의지국(禮儀之國)’이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이 인식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는 방법을 취하여 일행이 왜구가 아닌 조선인임을 전달하려 하였고, 자신이 예법을 중시하는 문인으로서 여타 숨겨진 침략 의도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지국이니 비록 표류하고 쫓겨다니는 궁색한 지경이라도 마땅히 예의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릇 이르는 곳마다 배리는 나에게 무릎을 굽혀 절하고, 군인은 배리에게 무릎을 굽혀 절하여 예의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만약 마을 앞에서 또는 성 안에서 무리지어

39) 김정녀, 「최부의 『표해록』을 통해 본 15세기 조선과 명조 문화 교류의 현장」, 『고전과 해석』 제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80쪽.

40) 최철호, 「『표해록』을 통해 본 최부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민족연구』 제79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209-230쪽.

와서 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손을 모아 예를 표하고 감히 제멋대로 행동함이 없게 하라.”<sup>41)</sup>

이때 최부가 조선 관료로서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중대했던 이유는, 이들이 왜구로 규정되는 순간 곧바로 보편적 인간성의 작동 범위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탈진한 최부와 종자들이 결국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창검과 방패 따위로 무장한 군인들은 요란스럽게 태평소·바라나팔·장북·총소리를 내며 그들을 에워싸 칼과 창으로 치고 찌르는 시늉’<sup>42)</sup>을 했다. 앞서 해안의 탈취 사건 이후, 당국에 올라간 왜곡된 보고 때문에 그들이 잠정적으로 왜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표착 이후 초기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처럼, 왜적에 대한 적개심 앞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방어나 동정심이 무력한 양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통찰한 최부는 마을 사람들이 앞 다투어 그들을 둘러싸고 구경할 때에도, 이후 이어진 혹독한 호송과 조사 과정에서도, 문학적 이해와 폭넓은 식견으로 낯선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신분에 대한 당국의 판단과 결정 이후 황제를 알현하고 안전한 처지가 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예법과 공경과 도리를 중시했다. 유학이 사상과 인식으로 깊이 체화되어 있었던 그에게 이러한 실천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었고, 예법을 능동적으로 드러내 이행의 특징으로 가시화한 방책은 그가 이문화 간 소통과 방위를 위해 취한 전략으로 실효성을 지녔다. 신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낯선 마을의 대인들은 최부 앞에 “진무와 배리 등이 무릎을 꿇은 것과 맨 끝의 군인들도 일제히 부복한 것”<sup>43)</sup>을 가리키며 ‘예의지국에 대해 들은 지 오래이며 과연 듣던 대로’<sup>44)</sup>라고 응답한다. 조직의 체계와

41) 최부, 앞의 책, 2010, 92쪽.

42) 최부, 위의 책, 98쪽.

43) 최부, 위의 책, 93쪽.

44) 최부, 위의 책, 93쪽.

질서가 샅된 것이 아닌 상호 공경과 예법에 의해 견고하게 바로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타국의 이문화 속에 고독과 고초를 겪고 있는 중에도 최부는 '상찬(賞讚)의 화법'을 유지했다. 괴로움과 억울함, 불만과 불안을 토로하며 현지인들과 간혹 부딪혀 퍽박을 받았던 종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가혹하게 육신을 내몰아 걸음을 재촉하던 군관에게 일행이 품은 마음은 두려움과 증오심 언저리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부는 본성(情)을 다스리는 것이 인지와 행위의 연쇄적 작용을 조정함을 알고 이를 능히 실천하고 있었다. 호송 관리 허청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상찬) 우리는 바다를 표류하면서 물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했고, 기갈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겨우 남은 목숨을 보존하여 귀국의 국경에 도착하여 관인을 만났고, 어제 아침식사를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공감대 형성) 그러나 장맛비와 진창길 속에서 구덩이에 넘어지고 골짜기에 엎어졌으며, 돌에 부딪치고 진창에 빠져, 몸이 얼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마음은 초조하고 힘은 다했습니다. 어제저녁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했고, 오늘 아침도 역시 먹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내몰려 큰비를 무릅쓰고 움직였으니, ③(우회적 주장) 우리는 아마 중도에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sup>45)</sup>

위 발화는 이문화 속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최부가 구사하는 상찬의 화법과 그 구성을 보여준다. 그는 위 ①과 같이 발화의 서두에서 어떠한 지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떠한 결과와 인식을 얻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상대방의 덕과 고귀함을 기리어 칭찬하는 부분에서 대상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세로부터 호혜의 태도로 전환하며 의식과 감정을 나눌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하

---

45) 최부, 위의 책, 100쪽.

여 상찬 메시지의 전달에 이어지는 것은 진솔한 자기표현과 공감대 형성이 다. 위 ①의 상찬 수렴 이후, 대상은 보편적 인간 내지는 고귀한 품성의 시혜자로 자신의 발화 위치를 확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대상은 인식의 왜곡과 저항이 최소화된 상태로 메시지를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이때 ②와 같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밀한 인식과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두 발화자는 연결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메시지의 해석과 2차 발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어질 2차 발화의 동기로 최부는 ③과 같은 간접적 요구(예컨대 ‘우리가 넘어져 죽지 않도록 휴식, 식사, 이동 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우회적 표현)를 제시하며 메시지 전달을 일단락 한다.<sup>46)</sup>

이러한 상찬의 화법은 다기하게 확인된다. 최부가 “장군은 먼 나라 사람을 관용으로 대우했으며, 내가 떠나갈 때에는 걸어서 성의 서쪽으로 나와 멀리 해곡까지 전송했고, 배에 오르도록 도와주었으며, 글로 써서 이별의 뜻을 전하니, 먼 나라 사람을 후대하여 보내는 분입니다.”<sup>47)</sup>라고 전별한 건도소의 천호 이양(李鼎)은 천제일우로 얻은 우정을 못내 아쉬워했다. 귀국길에 동행한 백호(통역사) 장술조는 “천여 리 길을 같이 오다보니, 진실로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나이 이미 이순(耳順)이고 다리의 힘도 또한 쇠약해졌

46) 로젠버그는 공감의 의사소통으로 ‘비폭력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일별하고 있다. 이것은 ‘1)평가가 섞이지 않은 구체적 행동을 관찰하기, 2)관찰된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3)느낌의 근원을 인식하여 그 배경에 존재하는 필요를 표현하기, 4)대화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구체적인 행동 요청하기’와 같이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긍정적 언어행위’와 ‘충족 가능한 구체적 요청 표현’, ‘행위 수행의 여부와 범위의 선택 가능성’이다. 김갑년,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비폭력커뮤니케이션 고찰』, 『독어 교육』 제78권,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20, 40-42쪽. 최부의 발화를 분석해볼 때 그는 의사소통에 있어 공감적 요소의 확립, 즉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문화 간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커뮤니케이션의 용법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47) 최부, 앞의 책, 2010, 133쪽.

으니, 어찌 당신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sup>48)</sup> 하며 존중과 우의(友誼)의 감정을 전하기도 하였다. 진술한 태도에서 비롯한 상찬과 공감의 화법이 일방적이지 않은 호혜적 관계와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곧 타국의 여정 속에서 일행의 안전하게 인도한 또 하나의 지도자적 역량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표착 후 그의 여정 속에서 단지 이렇듯 유연한 대응과 지략만이 소통을 위해 발휘된 것은 아니다. 말과 문화적 인식이 다른 이국인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더라도 그들은 그의 일관된 진술과 태도로부터, 그가 외유 내강한 인물이며 넓고 깊은 학덕과 기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차츰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이러한 인물형을 깨닫고 공유하게 되면서 표착 후 여정 속 빈번한 꾀박과 위기로부터 최부는 일행을 여러 번 구할 수 있었다. 일례로, 최부 일행을 해안의 해적으로 선(先) 보고한 후 처형하여 공으로 삼으려 했던 음모의 관계자들이 진술서를 단순화하여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문장을 수정하도록 협박 후 회유하였다. 이에 최부는 “공술서는 마땅히 직필(直筆)로 써야 하는데, 문장이 번잡한들 무슨 해가 되겠소? 게다가 고쳐 쓰라는 내용이 도적을 만난 일이오. 오히려 군인의복을 갖추고 있었다는 등의 말도 첨가하고 싶은데, 우리가 도적을 만난 정황을 없애라는 것은 무슨 의도요?”<sup>49)</sup>라고 반문한다. 이미 의중을 간파하고 있었으나 압력에 의해 꺾이지언정 미리 영합하여 안위를 도모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말과 문화와 관계의 측면에서 방도가 풍부한 현지 관리들에 비해 난민이 된 일행의 지위가 턱없이 빈약하며, 상황에 휘둘려 진실을 놓거나 왜곡을 허용하는 순간 더 이상 발언권조차 지닐 수 없는 지엄한 체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관리와 하수인들은 심문 과정에서 답례를 암시하거나 드러내 재차 강요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하되 굴하지 않는 강직한 대응을 보인다.

48) 최부, 위의 책, 489쪽.

49) 최부, 위의 책, 124쪽.

내가 관사를 물러나오니 허청의 하수인인 왕광(王匡)이란 자가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달래기도 하면서 끈질기게 재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내 행장에는 쓸 만한 물건이 없어서 응할 수 없었다. 이때 왕광이 또 와서 말했다. “우리 대인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던 유첩리를 벗어서 허청의 아들 융(隆)에게 주었다.<sup>50)</sup>

다른 곳으로 호송길을 떠나기 전, 상관에 대한 답례를 빙자하여 피조사자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하수인의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최부는 단호한 거절로 일관하지 않고 그렇다고 갈취에 패배하지도 않으면서 양심(良心)이라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일행을 방위할 방안을 취한다. 가진 옷을 벗어줌으로써 더 이상 가진 재물이 없음을 증명하였으며, 하수인의 상관인 허청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직접 옷을 전달함으로써 횡령을 예방한 것이다. 더욱이 권력을 지닌 관리가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옷을 주는 행위는, 타국의 관료인 자신이 이곳의 후세대에게 조선의 문화를 접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어 응졸한 협박에 그가 관대한 가치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답을 마치고 나는 서너 명의 관인과 더불어 탁자 옆에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서 있었는데, 적룡의 군리 한 명이 바깥에서 나의 종자인 김도종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나는 그 일을 써서 여러 관인에게 보이니 한 관인이 총병관에게 달려가서 고했다. 총병관이 그 군리를 잡아들여 장형을 가하고, 적룡 역시 아랫사람을 제대로 부리지 못한 죄로 장형을 가했다.<sup>51)</sup>

위의 사례에서는 최부가 고단하고 어려운 심문 과정을 이어가면서도 계급 계층의식의 공유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일행을

---

50) 최부, 위의 책, 127쪽.

51) 최부, 위의 책, 168쪽.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초4일, 조사관들은 “그대가 만약 조선인이라면 그대 나라의 역대 연혁·도읍·산천·인물·풍속·제사의·식·상·제·호구·병·제·전부(田賦)와 의관제도를 자세히 써오시오”<sup>52)</sup>라고 하며 각 기관에서 대질하여 확인할 진술을 요구한다. 최부는 이 같은 긴장 속 시험대와 같은 조사를 마치고 신뢰와 공경을 교류하기에 이른다. “그대가 쓴 사례의 시를 보니 이 지방의 산천을 어찌 그리도 상세히 아시오? 이 지방 사람에게 들어서 쓴 것이 아니오?”<sup>53)</sup>라는 그들의 반문에는 최부의 학식과 지력에 대한 감탄과 칭송의 어의(語義)가 드러난다. 어려운 관계 전환의 순간, 종자와 군리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최부는 망설임 없이 종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일행의 입장을 지원한다. 이해득실을 앞세워 판단하지 않는 최부의 이 같은 대응은 비차별적 인간애에 기반한 강직한 저항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월 25일, 군인 김율이 호송 관리의 탐욕과 간사함을 그 상관 양왕에게 호소하자 오히려 김율이 장형 10대를 맞게 되었는데<sup>54)</sup> 이에 최부는 이렇게 항변한다.

“지휘는 우리를 호송하는 것이 임무인데, 제멋대로 혼자서 장형을 집행했소. 나는 이국인이지만 명률에는 법조문이 있지 않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타일러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매를 맞았으니 상국이 먼 나라의 사람을 호송하는 도리가 아니오.”<sup>55)</sup>

실상 이 말은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조선인의 항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편적 인간의 비판으로 들린다. 빈곤한 처지와 빈약한 심신, 재해와 환난에

---

52) 최부, 위의 책, 157쪽.

53) 최부, 위의 책, 168쪽.

54) 최부, 위의 책, 282쪽.

55) 최부, 위의 책, 283쪽.

압도될 법한 상황이었지만 최부는 조바심 속에 행동하거나 사사롭게 영합하지 않았다. 안찰어사들과 대화 중, 최부는 “당신네 나라는 무슨 비결이 있어서 수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소?”<sup>56)</sup>라는 질문을 받는다. 조선을 상대적 소국으로 규정한 시선이자 사대 관계 속 숨겨진 인식을 간취하고자 하는 의중이었을 법하다. 이에 최부는 감정적으로 답답하고 매우 분석적 어조여서 강고함과 당당함이 전해지는 발언으로 응답한다.

“모신과 맹장이 병사를 지휘하는 데 도리가 있었으며, 병졸된 자들은 모두 충성스러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 때문에 고구려는 작은 나라였으나, 충분히 중국의 백만 대군을 두 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소. 지금은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인물은 많고 국토는 광대해져 부국강병하오. 충직하고 슬기로운 인재는 수레에 싣거나 말(斗)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소.”<sup>57)</sup>

그의 대답에서 ‘충직하고 슬기로운 인재는 수레에 싣거나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표현은 무엇보다 학덕을 중시하는 그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대국의 군대를 물리칠 비결과 자원이 다름 아닌 신하, 장군, 병사 등의 ‘인재’라는 것인데, 사람됨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그의 사상은 황제 앞에서도 퇴색되거나 꺾이지 않을 정도로 강고했다. 조정에 들어가 상을 받게 된 최부는 명의 예법에 따라 황제 앞에서 상복을 벗고 하사받은 관복으로 배사(拜謝)해야 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친상은 진실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화려한 옷을 입는다면 효과가 아니오. 나 또한 사람의 자식인데 상복을 경솔히 벗고 효과 아닌 명분에 처신할 수 있겠소?”<sup>58)</sup>라고 말하며 부모의 상중에 애도를 멈출 수 없는 ‘효

56) 최부, 위의 책, 246쪽.

57) 최부, 위의 책, 246쪽.

58) 최부, 위의 책, 414쪽.

(孝)의 중요성을 우선하고 있었다. 효와 충, 이 중 무엇을 먼저 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 자체가 그에게는 불효이자 불충이었을 것이다. 상복은 부친상 중이었던 최부가 먼 타국에서 애통함으로 부모와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매개물이기도 했다. 일상에서의 효가 아니라 상중에서의 효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진리였으며, 그가 처한 표류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거대한 가치였다. 그는 이러한 효의 사상을 비롯하여 인간의 사유와 그 가치에 대한 탐구를 삶의 지표로 삼고 35세까지 부단한 학문의 길을 걸어왔던 유학자였다.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로서 군자의 자세를 견지 하였던 그였기 때문에 낮섬과 역경, 이질적 감성들의 경합과 위태로움이 난무하는 표착 이후의 여정에서 그의 강인한 내면이 지켜질 수 있었을 것이다.

#### IV. 나가며: 인의(人義), 실천하는 군자의 공공성

최부의 표류 당시 배 안의 14일, 그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유실되고 관념적 질서가 무너진 현장이었다. 그는 물리적 측면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상황 속만이 아니라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과 공격의 질풍 사이에서 정치적 표류를 병행해야 했다. 또한 표착 이후 극도의 굶주림과 피로 속에서 일행 내부로는 정치적 인화력을 발휘하고 처음 접한 이문화와 적대적 관계의 위협 속에서는 보편적 인간성을 공명시킬 수 있는 대응을 지속해야 했다. 즉, 그는 계층별 생활환경에 따른 내부적 문화 차이와 한중 정치 환경에 따른 외부적 문화 차이를 함께 이해하고 그 갈등과 상이한 요구들의 중첩을 해결해야만 하는 생사관두(生死關頭)에 당면해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 교섭 과정에서 어떠한 소통의 기술 및 갈등 해소의 전략이 사용되며 이들을 생존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밀착 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었는지, 금남 최부의 『표해록』에 드러난 대화행위상황 등의 의미를 분석

하여 그 영향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곧 이 글의 주안점이었다. 분석의 경과로부터, 최부는 강렬한 원망과 잠재된 르상티망<sup>59)</sup>의 분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표류선 안에서 계층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발휘하려 하기보다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지성의 발휘와 '인의(仁義)'<sup>60)</sup>의 실천으로 갈등의 구조를 변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부의 대응 태도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그 반응의 초기 양상이나 과정이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나 위협 요인의 강도,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항상성 또는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관찰자의 시각에서 그의 소통 전략으로 보이는 지성(智性)과 인의의 감화적 발현은 사실 행위 주체인 최부의 선택적 전략이기에 앞서 체화된 예법이자 군자의 평상심이 드러난 자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류 상황 속 일행이나 표착 이후 접촉한 이문화인들은 경계 태세의 긴장을 늦추어 최부의 정체성을 관찰하고 확인할 기회를 얻었고 또 다른 전략적 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동반자적 감성과 생존의 목적성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착 이후 접경과 육로의 노정에서 특히 최부가 이문화 간 관계 맺기에 보인 두드러진 소통의 전략은 정명(正名)과 덕치(德治)<sup>61)</sup>의 균형된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해적들의 모략에 휩싸인 채 폭력과

59) 권정기의 연구(2014)에서는 니체의 시각을 빌려 르상티망(ressentiment)을 “의미 없는 고난이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조건과 자신이 처한 부정의한 사회환경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정신”으로 정의한다. 권정기, 「르상티망」, 『현상학과 현대철학』 제61권, 한국현상학회, 2014, 65쪽.

60) 이철주의 연구(2021)에 의하면 인(仁)은 공자 사상의 핵심으로 도덕적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의(義)는 천리(天理)에 근거한 일의 마땅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자의 학문에 있어 고정된 준칙으로 일컬어진다. 이철주, 「공자의 도덕적 인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2호, 인문사회21, 2021, 2681-2682쪽.

61) 안외순의 논문 연구(2016)에 의하면 정명(正名)은 무질서를 경계하는 의식에서 도출된 것으로, 모든 질서를 구성하는 만물만사의 기본 개념을 본래의 개념답게 바로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만인이 각각의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가 자신의 수양과 동시에 그 결과로서 피치자의 안녕을 제대로 도모하는 것이라

비위(非違)가 난무하여 질서의 체계에서 벗어난 시공간에서조차 권모술책으로 응전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며, 서로의 보편적 인간성을 신뢰한 발화-장을 구성하는 데 외유내강의 의지력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강고한 학문적 준거에서 출발하되 자비와 호혜를 표명하는 부드러운 감성으로 대상을 포괄하며 소통의 자장을 구성하였다. 이는 실로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이 체화하고자 부단히 수행한 군자의 양상으로, ‘도덕적 준거를 자기에게서 찾고 도덕적 선을 자기로부터 실천’<sup>62)</sup>해 나가는 지도자적 면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5세기 조선의 군자 상을 확인케 하는 최부의 이문화 간 소통 전략은 혼종성과 탈경계적 운동성으로 점철된 오늘날, 의미심장한 성찰과 사상적 차용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신체에 깃든 생명과 의식은 우리 각각의 인간에게 하나의 세계를 열리게 하는, 즉 존재함의 전제이자 조건으로서 침범하거나 강탈되지 않아야 할 한계선이다. 그러함에도, 제도와 질서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 및 국가의 영역들 사이에는 인권의 이해관계가 명백히 충돌하고 있다. 박상희(2021)는 한나 아렌트의 시각을 원용하면서, ‘전 인류에게 있어 양도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제공을 강요할 수도 없는 인권 문제의 아포리아’<sup>63)</sup>에 관하여 언술한다. 구조의 다양성은 모든 신체와 환경

---

한다. 공자는 법과 형벌이 최소화된 덕치와 예치의 이상사회를 설정하여 법의 필수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 상호 배려의 정치, 인(仁)의 가치가 구현된 정치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안외순, 「<논어(論語)>에 나타난 정치 관념」, 『동양문화연구』 제24권, 동양문화연구원, 2016, 21쪽; 24-25쪽; 31쪽. 법과 형벌의 실상이 유명무실해진 표류표착 이후의 상황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도덕적 감성을 공명시키는 원리이자 최부의 체화된 군자적 역량으로서 인의와 예법, 덕치의 의식이 자구적으로 발현된 과정이었을 것이다.

62) 장영희, 「공자(孔子)의 군자론(君子論)과 ‘인(仁)’의 리더십 -『논어』의 군자론(君子論)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70호, 동악어문학회, 2017, 136쪽.

63) 박상희,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규범적·정서적 포섭과 배제: 소속감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5권 3호, 한국사회학회, 2021, 76-77쪽.

을 인위적으로 획일화할 수 없는 것처럼 마땅히 자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디지털 시대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구조가 변용의 요청에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하나의 국가 세대인종 등의 정체성으로 규명될 수 없고 관계의 형성 역시 신체가 자리한 지역과 결부될 수 없음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 삶의 보편화 과정에서 체험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느 장소에 놓여 지역과 관계된 특수성을 함의한 신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특수성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변용되는 양상이 지구적으로 확장된 삶의 장소에 놓인 현재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인권 이해관계의 충돌이 국가나 민족세대·젠더·계급 등 고착된 정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감성과 인식이 발화되는 다양한 장들 사이에서 감지되거나 가시화된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경계 사이의 잡음처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면에서 보완제공되어야 할 것은 발언권의 평등한 제공과 경청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각 개인에게 과연 어떠한 환경·관계·위치가 자신의 인권을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들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요청을 표명할 수 있도록 공공의 발화-장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또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번역 및 전달을 통해 또 다른 인권의 발화자인 대상들이 그 요청의 의미와 배경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버틀러는 신체가 ‘거기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중지역성을 받아들이며 교섭하는 상황’,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관계와 간(間) 시간성’이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sup>64)</sup> 가령 우리는 미디어를 통한 번역과 댓글을 통한 문화적

64) 주디스 버틀러, 김웅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창비, 2020, 154-155쪽.

피드백과 같이, 일상의 층위에서 두루 체험될 수 있는 교섭의 현장을 주목하고 그 소통의 경과와 성과를 신뢰할만한 학술적 발화로 재현함으로써 공공성에 기반을 둔 발화-장 마련을 포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관계도와 서사가 그려지고 난 후 표류하는 신체로서 난민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영토에 결부된 신체로서 국민의 주권을 발휘하는 것에 우선할 일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유목민이거나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전지구적 혼종성을 지닐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편적으로 이주민의 잠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타자로서 난민이 처한 위협의 둘레에 모여 발화 및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구성하고 상이한 인식과 감성의 교차를 지원·지속하는 것, 이것은 놀랍게도 이미 수 세기 전부터 영토의 경계를 인식하되 인간의 경계를 나누어 생각지 않았던 동아시아 해상 이동과 접촉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방책이다. 최부의 표류 및 표착 이후의 기록은 해로의 발달로 상거래와 문화 횡단이 번성하던 15세기 무렵의 동아시아 난민 인식과 대응, 그리고 각국의 대응 제도와 절차를 중국의 사례 중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자료로서 희귀성과 유의미성이 지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의 대양으로 전 지구적 항해가 진행 중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역시 참조적용할 오랜 소통의 자원으로, 낯선 갈등의 관계 속에 나타난 최부의 대화를 분석하고 지덕을 갖춘 조선 문인의 화법과 품성을 발굴할 수 있었다. 즉 이 연구의 과정은 금남 최부의 『표해록』을 또 다른 측면, 즉 소통론의 범주에서 재의미화하는 작업이었다. 한편 이 글은 인간의 오래된 공존 전략을 환기함으로써 이주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오늘날 복잡한 사회적 역학 속에서 보호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관점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 참고자료

### 기본자료

- 유희춘, 김세종안동교·박명희 옮김, 『미암집』2, 경인문화사, 2013.  
최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10.

### 논문

- 강운옥, 「최부 『표해록』 육종판본속자탐토(六種版本俗字探討)」, 『중국학보』 제77권, 한국중국학회, 2016.
- 권정기, 「르상티망」, 『현상학과 현대철학』 제61권, 한국현상학회, 2014.
- 김갑년,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비폭력커뮤니케이션 고찰」, 『독어교육』 제78권,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20.
- 김강식, 「최부의 『표해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3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 김경미, 「최부 『표해록』의 관광학적 고찰」, 『관광경영연구』 제22권 4호, 관광경영학회, 2018.
-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제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 김신희, 「의사소통론에서 본 집단 의사결정의 합의지향 모형」, 『사회과교육연구』 제5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8.
- 김정녀, 「최부의 『표해록』을 통해 본 15세기 조선과 명조 문화 교류의 현장」, 『고전과 해석』 제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 김정욱, 「영양재개증후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제7권 1호,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15.
- 김치완, 「제주(濟州)·유구(流求) 표류 난민의 신분 위장과 경계인 의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1권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 박명숙, 「최부 『표해록』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강남 이미지」, 『온지논총』 제27권, 온지학회, 2011.
- 박상희,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규범적·정서적 포섭과 배제: 소속감

-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5권 3호, 한국사회학회, 2021.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외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전 문학과 교육』 제13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손민환, 「15세기 말 중국을 건문한 조선 지식인의 환관 의식 -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27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안외순, 「<논어(論語)>에 나타난 정치 관념」, 『동양문화연구』 제24권, 동양문화연구원, 2016.
- 오인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필담」, 『역사와 세계』 제44권, 효원사학회, 2013.
- 윤인선, 「여행 경험 서사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 -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66권, 한국기호학회, 2021.
- 이광혁, 「최부 『표해록』 문화사적 가치와 한중 문화융합」, 『중국인문과학』 제71호, 중국인문학회, 2019.
- 이구의,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서사양상과 문명의식」, 『동아인문학』 제47호, 동아인문학회, 2019.
- 이지영, 「최부 『표해록』 언해본의 이본 고찰」, 『국어국문학』 제178호, 국어국문학회, 2017.
- 이철주, 「공자의 도덕적 인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2호, 인문사회 21, 2021.
- 임상선, 「『표해록』을 통해 본 최부의 한국 고대사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제28권, 한국사학사학회, 2013.
- 장영희, 「공자(孔子)의 군자론(君子論)과 ‘인(仁)’의 리더십 - 『논어』의 군자론(君子論)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70호, 동악어문학회, 2017.
- 전영섭, 「10-13세기 표류민(漂流民) 송환체제(送還體制)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석당논총』 제50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 정은혜, 「모빌리티 렌즈로 바라본 최부의 『표해록』」, 『인문학연구』 제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 주성지, 「구글맵을 활용한 최부 『표해록』의 노정 복원」, 『역사민속학』 제57권,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 차해란, 「15세기 말 문화교류 현장체험을 통한 한중 관료 문인의 타자인식 비교-최부의 『표해록』과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8호, 한중인문학회, 2023.
- 최철호, 「『표해록』을 통해 본 최부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민족연구』 제79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 황아영,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문학적 서술방식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38권 1호,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 단행본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창비, 2020.

### 온라인 자료

- 국가유산진흥원, <폭풍을 만나 떠난 여행, 표해록>, 《국유정답》 2022 가을겨울호, [https://www.kh.or.kr/brd/board/741/L/menu/740?brdType=R&thisPage=1&bbIdx=114734&searchField=&searchText=\(2024.8.26.검색\)](https://www.kh.or.kr/brd/board/741/L/menu/740?brdType=R&thisPage=1&bbIdx=114734&searchField=&searchText=(2024.8.26.검색)).

---

METHODOLOGICAL EXPLORA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OF GEUMNAM CHOI BU'S  
PYOHAE-ROK

CHOE HYEGYEONG (CHOE, HYE GYEONG)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published version of “Jungjomun Gyeonilgi” (中朝聞見日記), written and presented by Choi Bu right after he came back to life, I analyzed the aspects of Choi Bu’s speech and behavior, and explored how the overlapping aspects of heterogeneous and mutually conflicting emotions could be transformed into a “field of empathy” for survival through applying certain skills or strategies of communication. To this end, I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East Asia’s humanitarian rescue policy as a survival measure during Choi Bu’s drifting journey, as well as the strategies of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hat he demonstrated toward those both inside and outside his party during his refugee journey. This was a process of demonstrating what kind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can be used during conflict, where the most minimum conditions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have been lost and the ideological order has collapsed—and, moreover, in a closed space where negotiations must continue despite such circumstances. This article’s main intent wa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conversations, actions, and situations reported in Geumnam Choi Bu's *Pyohae-rok* and to trace the flow of the emotional system of intercultural struggle being reconstructed into an intimate relationship that shares the goal of survival and universal humanity.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hoi Bu transformed the conflict's structure by exercising his intellect to induce rational judgment and practicing "benevolence" rather than trying to exert control by means of relying on hierarchical power on the drifting ship, which could have been a space where intense resentment and latent resentment could have erupted. In addition, the prominent communication strategy that Choi Bu displayed in establishing intercultural relations while travelling along the border and land routes was the balanced realization of rectifying names and governing with virtue. When we look at the consistency or homeostasi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ir manifestation, we can see that it was not a selective strategy of Choi Bu, the actual actor, but actually an embodied etiquette and a natural result of the gentleman's calm mind. In this way, Choi Bu'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trategy revealed in the records of *Pyohae-rok* not only allows us to vividly relive the image of a gentleman in 15th-century Joseon,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meaningful reflection and philosophical borrowing in today's world, which is marked by hybridity and transcending movement. This article analyzes Choi Bu's utterances contained in *Pyohae-rok*, a classic and factual record, from the perspective of exploring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and will expand the foundation of Choi Bu's research. Simultaneously, in today's world where global border crossing is becoming increasingly hybridized due to the advancement and utilization of digital media, we contend that

we will discover what East Asia's long-standing promise has been when encountering an unfamiliar "other" and thus gain a reference point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coevolution.

Key Words : Geumnam(錦南), Choi Bu(崔溥), *Pyohae-rok*(漂海錄), Yoo Hee-chun(柳希春), East Asia,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rategy, virtuous man, emotion, sympathetic field(共感場)